

안녕하십니까?

冠略하옵고, 승실철학회의 件을 깊게 생각합니다. 아래의 것을 잠깐 보아주십시오.

대전제:여럿이 모여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자.---혼자의 것은 혼자하면 된다.

안:1. 잦은 모임으로 결속력을 강화한다:주제의 보편성과 토론의 다양성.

2.서로에게 좋은 idea를 준다:어학 및 자료,그리고 흥미도.

밖:1.사회적인 활동과 공헌:일반인,상식인에게도 철학을 접근할 수 있도록.

2.자금의 확보:가.대중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서적의 출판.

나.지원도 받고 지원도 하자.

다.회비 사용명단과 납부명단을 공개한다.

라.경우에 따라서 입장료도.

우리는 위와같은 생각에서 1993년을 출발합니다.하나의 Event 사업처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단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만큼은 보장합니다.

일반인이 위대한 저자가 되는 시대입니다.석박사과정,때로는 학부도 포함한 학생이 저자가 되지 말라는 조항은 東西萬法에 없습니다.이를테면 한,두 번의 발표회가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보는 것이 어떠할런지요.아래 어떻습니까?

교수와 박사과정 이상은 4편 정도,

석사과정 및 이수자는 2편 정도,

경우에 따라서 학부생은 1편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래입니다.

주제는 위에서 말한 안과 밖의 원칙에 맞도록 일반인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도 일상적인 주제를 잡는 것입니다.그렇다고 해서 글이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쉽게 말할 수 있을 때야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분량은 200자 50내외로 합니다.주제는 여러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이를테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비유와 철학』

2.『여자와 철학』

3.『땅과 철학』 등등.

그외에도 과거의 철학,시간과 철학,절대자와 철학,신화와 철학,돈과 철학,미술과 철학,음악과 철학 등등이 가능한 주제입니다.우선 첫 번 째로 꼽은 『비유와 철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철학으로는 노자의 물,장자의 봉황,양옹의 지구와 달걀,禪과 절벽 뛰어넘기,모택동의 고양이 등등이 가능하겠고,서양철학으로는 플라톤의 동굴,로크의 백지,흙의 당구공,프레게의 셋별,비트겐슈타인의 사다리 등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자와 철학』이 조금 거칠다면 邪僮不載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철학자들의 여인관을 열거함으로써 오늘을 더욱 깊게 반성하자는 주제라는 것만 밝혀둡니다.이를테면 동양으로는 주역의 여인관,공자의 소인과 여자,노자의 여성우월주의와 谷神,맹자의 好色,夫婦有別의 타당성,纏足과 미감 등등이 있겠고,서양으로는 플라톤의 여성관,기독교와 여성,루소의 여인들,엥겔스와 여성해방,History와 Herstory,예술에서의 여인 등등이 있겠습니다.『땅과 철학』은 土地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희망으로 삼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의 합리성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동양의 井田法이라든가,서양의 봉건제와 그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는 생각입니다.이를테면 맹자의 정전법,목가의 공개념과 겸애,실학과 토지개혁론 등등입니다.그 아래에 적어는 『과거의 철학』의 예를 들면 동양의 뿌리깊은 복고주의도,희랍인의 시간관도,기억의 현상학도,과거형의 분석철학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훌륭하고 전문적인 저자들을 갖고 있습니다.아래의 첫 번 째로 예를 든 『비유와 철학』이라는 여러 주제에 합당한 선생님과 同學은 남과 내가 모두 누구가 알맞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좀더 다른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양:

-주역의 龍

-맹자와 우물가의 아이

- 노자의 통나무
- 장자와 언챙이
- 곽상의 말발굽
- 禪의 달과 내(月印萬川)
- 장횡거와 아지랑이(野馬)
- 양명의 대나무
- 顔元의 창백한 원숭이
- 실학과 虎患

서양:

- 헤라클레이토스의 불
- 호머의 습
-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
- 아리스토텔레스의 배설
- 오캄의 면도날
- 러셀의 대머리 프랑스왕
- 하이데거와 농부의 구두
- 데리다의 하얀 신화
- 공리주의와 멋진 신세계
- 善과 노랑(Yellow)

이와같은 예제는 여러 선생님들과 학형이 훨씬 더욱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몰라 빠진, 정말 재미있고도 유익한 철학자의 비유는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것을 소개시켜주십시오. 지금 당장 마땅한 것을 생각해보십시오(當下覺悟).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대전제인 '여럿이 모여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유라해서 결코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覺醒과 洞察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 후에 책자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야말로 학회의 발전과 Colloquia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송실을 아끼는 모든 분들께서 깊고 넓은 도움을 주시길 懇切히 衷心으로 비읍니다.

송철회                    장 재 덕 회장  
충무 정세근 올림 '93. 4. 23.

## 『비유와 철학』 [1] : 송실철학연구회 1993년도 겨울 발표회

### 「때와 곳」

1. 일 시 : 1993년 12월 13일 (월요일:동기방학 개시일) 늦은 2시-6시
2. 장 소 : 송실대학교 사회봉사관
3. 문 의 처 : 송실대학교 철학과 (820-0370)

### 「진행과 발표 그리고 토론」

1. 회장인사 ----- 장 재 덕(강원대)
2. 격 려 사 ----- 안 병 옥, 최 명 관(송실대)
3. 발 제(희랍철학을 중심으로) ----- 조 요 한(송실대)
4. 발 표(無 順)

- 1) 1부 : 사 회 ----- 김 래 균(중앙대)  
 가. 이 반(승의여전) --- 「예수의 낙타와 바늘구멍:소유」  
 나. 이 태 영(동국대) ----- 「붓다와 독화살:無記說」  
 다. 김 태 완(승실대) ----- 「맹자와 버드나무그릇:性善說」  
 라. 신 응 철(승실대) ----- 「하이데거와 농부의 구두:예술」
- 2) 2부 : 사 회 ----- 이 윤 일(관동대)  
 가. 제갈창수(승실대) ----- 「헤겔의 미네르바의 올빼미:진리인식」  
 나. 신 하 령(승실대) ----- 「퇴계의 말과 사람의 숨바꼭질:理氣論」  
 다. 홍 성 하(성균관대) --- 「훗설의 등근 사각형:지향성」  
 라. 최 명 환(승실대) ----- 「남당과 이간의 간장:人物性同異論」
5. 토 론 : 사 회 ----- 김 기 순(승실대)

「시간예정 및 공지사항」

- 2:00 ----- 회장인사, 격려사, 발 제  
 2:20 ----- 1부 발표(80분:각 20분)  
 3:40 ----- 휴 식(10분)  
 3:50 ----- 2부 발표(80분:각 20분)  
 4:10 ----- 휴 식(10분)  
 4:20 ----- 토 론(100분)  
 5:50 ----- 총 평(토론사회자)  
 6:00 ----- 폐 회  
 (폐회 후 저녁모임이 있습니다.)

1. 폐회 후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2. 회원회비 : 1만원, 방 청 객 : 무료, 자료비 : 5,000원 /3.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4. 다음 발표회를 위해 좋은 주제나 원고를 갖고 계시는 분께서는 연락바랍니다(정세근:402-2552). 회원, 비회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자격제한도 없습니다. 다음 주제도 『비유와 철학』[II]로 할 예정입니다.

# 『비유와 철학』 [ II ] : 송실철학연구회 1993년도 겨울 발표회 예정 및 가제

\* 저번 <송실철학연구회 1993년도 여름 발표회>에 논문을 발표해주시고 사회를 보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발표자의 디스켓(HWP) 및 출력 1부는 레이저 편집과 장정을 위해서 11월30일까지 과사무실로 보내주시시오.

## 「때와 곳」

1. 일 시 : 1993년 12월 13일 (월요일: 동기방학 개시일) 늦은 2시-6시
2. 장 소 : 송실대학교 사회봉사관
3. 문 의 처 : 송실대학교 철학과 (820-0370)

## 「진행과 발표 그리고 토론」

1. 회장인사 ----- 장 재 덕(강원대)
2. 격 려 사 ----- 안 병 옥(송실대), 박 근 용(장신대)
3. 발 제
4. 발 표(無 順)
  - 1) 1부 : <철학에서의 비유> 사 회 ----- 최 기 표(동국대)  
가. 양 승 열, 「비트겐슈타인의 자아의 눈: 철학적 주제」  
나. 김 광 현, 「베버의 새로운 학: 사회과학 인식방법론」  
다. 오 지 석, 「플라나트츠와 흠의 빗자루: 명확성」
  - 2) 2부 : <비유의 철학> 사 회 ----- 김 승 국(송실대)  
가. 희랍철학 : 김 재 흥, 「호메로스의 미토스와 로고스적 사유」  
나. 해석 학 : 정 기 철, 「리피르와 비유의 철학」  
다. 분석철학 : 이 윤 일, 「분석철학에서 비유의 문제」
5. 토 론 : 사 회 ----- 김 종 걸(침신대)
6. 총 평 ----- 김 기 순(송실대)

## 「시간예정 및 공지사항」

- 2:00 ----- 회장인사, 격려사  
2:10 ----- 1부 발표(60분: 각20분)  
3:10 ----- 휴 식(10분)  
3:20 ----- 2부 발표(60분: 각20분)  
4:20 ----- 휴 식(10분)  
4:30 ----- 토 론(100분)  
5:50 ----- 총 평(10분)  
6:00 ----- 폐 회(폐회 후 저녁모임이 있습니다.)

## <사업보고>

1993년 송실철학연구회는 두차례의 연구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비유와 철학」으로 선택되어 여름에는 1993년 6월 21일, 겨울에는 12월 13일 사회봉사관에서 있었습니다.

여름발표회에는 특히 중요한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으며, 겨울발표회에서는 철학에서의 비유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의 비유관도 다루어졌습니다. 발제 이외에도 모두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인물로는 예수, 붓다, 맹자, 하이데거, 장자, 퇴계, 훈설, 남당과 외암,

비트겐슈타인, 플라나르츠, 리피르, 그리고 데이빗슨 등이 포함되었고, 분야별로는 동서양철학을 불문하고 현상학, 해석학, 분석철학, 그리고 윤리학의 문제가 언급되어 동서양과 고금이 작게나마 망라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땅과 철학」과 같은 주제로 승실철학연구회의 학문적 역량이 한 곳으로 모여질 수 있길 희망합니다.

#### <회계보고>

회계보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승실철학연구회의 재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전임총무가 연구회의 통장을 갖고 있다는 했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것은 없다고 들었을 뿐입니다.

다행히 전임조교 신용철군 및 동문회의 윤은주양의 도움으로 레이저 프린트나 복사를 할 수 있었고 학과에서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기타 소소한 비용은 승실철학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헌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수증으로 돈이 들어온 적이 없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승실철학연구회의 발전을 위해 직간접으로 성의를 표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갑작스런 집안일로 서면보고하게 됨을 사죄드립니다.

1994. 1. 18.